

퓨전푸드의 문화적 이해

이 교 등

현실문화연구 기획위원

1

요사이 퓨전 푸드라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첨단 유행이 몰려 있는 강남의 한 지역에는 퓨전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며, 피씨 통신의 미식 동호회에는 퓨전 푸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이나 케이블의 문화 프로그램에서 퓨전 푸드에 대

한 소개를 보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며,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퓨전 푸드의 명인을 모셔왔다는 퓨전 푸드 식당의 얘기도 그다지 흥미를 자아내지 못할 정도로 퓨전 푸드는 어느새 한국의 문화지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버린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주거나 패션, 음악, 미술 등에서도 퓨전은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대체 퓨전이란 무엇인가?

2

퓨전(fusion)이란 fuse라는 영어 동사의 명사형으로, 융합 또는 융해의 뜻을 가진 일반 명사이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퓨전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쓰이는 용례에 따라 그 뜻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현대 문화를 설명하는 용례로서 퓨전은 문화의 개별적인 현상들이 하나의 규범 아래 모여들어 융합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분열을 의미하는 fission이란 단어와 함께 후기 산업 사회의 문화를 설명하는 두 개의 대립축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퓨전이란 단어가 문화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지난 수 백년간 서구 사회를 지탱하여 왔던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의 철학이 20세기 들어 일어난 두 차례의 커다란 세계 대전을 계기로 그 근본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찾아온 후기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전후 베이비 붐 세대를 기반으로 한 대중 문화 산업의 융성은 이제 사상의 중심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다가치 사회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1960년대 서구 사회 질서의 붕괴로 귀결되었다. 당시 등장한 히피리즘의 등장과 비서구 철학의 서구 주류 학계로의 진입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하려는 모색의 한 방편으로 비서구적 요소를 자신의 테두리 안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서구 변방 문화의 실제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70년에 발표된 흑인 재즈 음악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 “비치스 브류 Bitches Brew”는 이러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는데, 그 타이틀의 뜻이 상징하는 만큼 서구 대중문화에 비서구적 문화 요소들이 차츰차츰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재즈 음악은 “퓨전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새로운 요소를 혼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 시대를 결정할 만큼 강렬했던 것이고,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정치적, 문화적 성장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시켜 주었다. 결국 퓨전은 음악 뿐 아니라 미술과 패션 등 문화의 여러 장르에서 지속적인 한 흐름으로 자리잡는다.

3

음식에서의 퓨전의 경향은 1980년대에 북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을 달리하는 상이한 조리법을 하나의 요리에 적용하는 퓨전 푸드는 파인애플이 들어 간 타이 스타일의 피자과 같이 기존의 조리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음식들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나타나기 시작한 음식에서의 퓨전의 경향은 다른 분야에서 나타난 실험적 돌파의 방편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 전략의 하나로 이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1960년대 서구 문화지형의 중심에서 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레이거노믹스 경제 정책 아래에서 “여피”라고 불리는 새로운 중산층 소비 계층으로 성장하면서 소비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퓨전 푸드, 아니 퓨전 문화의 확산은 더욱 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다. 관광 산업의 발달로 인한 타문화 지역에 대한 여행 기회의 증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존의 이질감이 상당히 감쇄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어쩌면 새로운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축적 정도가 인격과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지구적 수준의 정보화 사회 역시 서로 다른 사회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제는 국경과 대륙을 사이에 둔 여러 사회 간의 문화적 거리감도 접촉하는 회수에 반비례하여 좁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타문화의 음식과 조리법이 다른 문화의 음식 문화에 투입해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4

그러나 따지고 보면 퓨전이라는 문화 현상, 특히 음식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퓨전 현상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문화가 복합화 되어 가는 과정, 즉 문화의 잡종화 과정 내지 문화접변이라는 현상을 색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퓨전”이라는 색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순간 이것은 “그 무언가 새롭고 고급스러운 그 무엇”을 연상시키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자본주의의 상술이 가세하면서 “퓨전 푸드”는 기존의 평범한 문화에 바탕을 둔 음식과는 구별된다는 식의 자본주의적 자기최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퓨전 푸드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 화려한 미사여구를 빼 버리고 나면 그 실체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전통적 조리법에 새로운 외래의 조리법 혹은 재료가 결합된 음식이라고 쉽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예를 들었던 타이식 피자는 피자라는 전통적인 이태리 음식에 파인애플과 타이 향신료라는 새로운 재료가 결합한 음식이다. 이것의 문화적 본질은 조선시대의 선인들이 차오루우스라는 중국음식을 지극히 한국적인 맛과 재료를 가진 ‘잡채’로 토착화한 과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음식이 되어버린 부대고기나 부대찌개와 같은 음식도 사실은 20여년 전에 “퓨전”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 문화이 토착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만 부대찌개를 만든 사람들은 “퓨전”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몰랐기에 그들의 새로운 음식에 근사한 이름을 붙일 수 없었을 따름이다.

퓨전 푸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화적 주체성이다. 아무리 새로운 음식과 재료가 쏟아져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문화적 잠재력이 없다면 “퓨전”이라는 것도 단지 한때 유행하는 하나의 유행일 수밖에 없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소시지와 베이컨, 햄 따위를 가지고 김치찌개의 맛을 성공적으로 바꾸어 놓은 부대찌개의 교훈은 인위적 맛, 서구적 맛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어떤 다른 전략을 퓨전 푸드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언제나 집종의 생명력은 강하다. 그리고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도 더이상 “전통”의 이름 아래 순수 혈통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 문화 상황이다. 여기서 퓨전은 우리의 문화가 지향해야 할 한 지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세기의 한국 문화 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자 세계화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바탕에는 항상 국적불명의 짬뽕이 아닌 뿌리를 가진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각성이 전지구화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는 문화적 잠재력에 대한 각성이 단순한 기술로서의 퓨전 푸드에 대한 이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